

녹음하기 전에

젊음의 계절, 여름이 어느 해보다 빠른 걸음으로 다가오고 있다. 여름과 어울리는 음악은 어떤 음악일까? 그럼 가장 잘 어울리는 악기는? “너무 막연하다면 보기를 드릴테니 선택해 보세요. (1. 피아노 2. 색소폰 3. 기타 4. 트럼펫) 물론 정답은 없습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3번 기타를 선택하셨으리라 생각된다. 여름하면 바다, 바다하면 하얀 백사장, 백사장하면 캠프 파이어, 캠프 파이어하면 기타이기에... 언제나 재즈를 사랑하는 MM 식구들에게 매달 새로운 음악과 그 음악인들을 선물 하고픈 설레임으로 하루하루를 보내는 우리 MM 편집진의 7월 선물은 바로 기타이다. 그것도 한대가 아닌 두 대.

강렬한 태양과 같은 일렉트릭 사운드와 시원한 파도 같은 어쿠스틱 사운드를 함께 들을 수 있는 것이다. 열 번째를 맞이하는 이번 CDplus의 또 다른 의미는 세계로, 미래로 뻗어가는 몽크몽크를 위하여! (건배) 여기 한국에서 몽친 4명의 다국적 뮤지션들은 음악을 소개하는 것이다. 우선 멤버들을 소개해 보자면 Guitar는 캐나다에서 온 Lance Reegan-Diehl, Rhythm Guitar는 칠레에서 온 Federico Olivares, 베이스는 아주 멋진 이름을 가진 캐나다에서 온 Blue “Boogie Man” Rooney, 드럼은 영국에서 온 Dean Payne이다. 그룹명 L. R. D. Band는 리더인 Lance Reegan-Diehl의 이니셜인데, 하얏트 호텔에 있는 재즈바인 ‘제이제이 마호니’에서 각기 다른 밴드의 멤버로 연주하다가 잼을 계기로 뭉치게 된 프로젝트 그룹이기 때문에 특별한 팀명을 만들지 않았다고 한다. 서울재즈아카데미 김홍탁 원장님의 적극 추천과 매주 월요일 새벽 1시부터 두 시간 동안 직접 진행하시는 SBS FM ‘재즈 스테이션’에서 선보인 그들의 어쿠스틱 연주를 들은 MM 편집진의 만장일치 찬성으로 이번 CDplus의 주인공이 된 것이다. 악기 편성에서도 알 수